

문헌정보학 연구에 있어서 글쓰기의 혁신은 가능한가

김 정 근* 김 영 기**

<목 차>

- | | |
|---------------------------|-----------------------------|
| I. 옥이이모-1인칭 드라마 잔잔한 독백 눈길 | VI. 질적연구 |
| II. 우리의 이야기를 하자-적실성 | VII. 방법혁신 |
| III. 인접학문의 자생력 기르기 | VIII. 우리식 글쓰기-문체의 혁신 |
| IV. 기본으로 돌아가자-주제의 혁신 | IX. 우리의 지식인 사회는 식민성에 찌들어 있다 |
| V. 똬장 담그는데 전자렌지를? | 참고자료 |

I. 옥이이모-1인칭 드라마 잔잔한 독백 눈길

1인칭 드라마가 눈길을 끌고 있다. 극중에 화자의 독백이나 내레이션 을 삽입해 이야기를 화자의 시각에서 이끌어가는 1인칭 드라마가 새로운 '드라마패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태반이 '전지적 작가 관점'으로 일관한 기존의 드라마 문법체계를 과감히 깨뜨린 이들 1인칭 드라마는 현재 서울방송의 〈옥이이모〉 〈아스팔트 사나이〉, 한국방송공사의 아침드라마 〈길〉등 세편이 손꼽힌다(한겨레신문 '95. 5. 31 15면).

〈옥이이모〉는 요즘 잘나가는 프로그램속에 속한다. 60년대 경상도 촌구석을 배경으로 극중화자인 상구가 어릴때부터 중년에 이르기까지 이모의 삶을 지켜보면서 느낀점을 포착한 성장드라마이다.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로 씌으면 씌을 수록 말맛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

이 우려나는 작중화자의 독백은 어느새 연령층에 관계없이 시청자들의 정서를 일깨워 준다. 이 짧은 신문기사에 나타난 ‘보편’에 대한 ‘파괴’와 ‘주체’의 등장인 필자들의 글쓰기에 대한 고민의 연장선과 닿아있다. ‘태반이 전지적 작가 관점으로 일관한 기존의 드라마 문법체계를 과감히 깨뜨린 이들 1인칭 드라마’라는 구절에서 필자들은 어떤 동료의식, 동지애를 느낀다. 필자들은 이런 드라마 같은 글을 쓰고 싶은 유혹에 사로잡힌다.

소설에 ‘나’라는 1인칭이 등장하는 경우는 흔하다. 이제 드라마에서도 1인칭 화자가 극의 전개를 주도해 가기 시작했다. 만약에 학술논문에 ‘나는 이렇게 봤다’라든가 ‘나는 저렇게 느꼈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논문이라고 던져 버리지는 않을까? 논문의 기본도 모르는 것이라고 욕하지는 않을까?

필자들은 지금 글쓰기에 관한 글을 쓰면서 이 글자체를 어떻게 써 나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보편적인’ 학술논문의 글쓰기는 대체로 이렇다. 우선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뚜렷이 구분되어 있다. 다시 서론에는 문제제기, 연구목적, 연구범위, 연구방법, 선행연구 조사가 단골메뉴로 등장하며, 여기에 가설의 설정 또한 자주 등장한다.

그리고 본론에서 거대한 이론과 설문조사의 결과, 복잡한 통계치들로 문장을 길게 늘어뜨린 다음, 긴가민가한 - 그런것 같기도 하고 그런것 같지 않기도 한 - 결론과 지당한 대안으로 마침표를 찍는다. 물론 위대한 스승의 이름과 그들의 저작을 길고도 자세하게 각주와 참고문헌으로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는다. 필자들 역시 이러한 ‘과학적인’ 글쓰기에 알게 모르게 상당히 길들여져 왔으며, 필자들이 대하는 대부분의 학술적인 글 또한 이러한 양식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이런 따위의 글쓰기란 쓰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을 지치게 할 뿐, 흥미를 유발하지 못한다.

학회에서의 학술발표회 또한 글쓰기의 문제와 관련하여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여러번 학회에 머리를 내밀고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도대체 재미가 없

다. 발표하는 내용이 잘 들리지도 않고 원고화되어도 잘 읽히지도 않는다. 누구나 다 알고 느끼는 이야기를 문제시해 놓고는 복잡하고 어려운 통계적 증거과정을 거쳐 그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가 일쑤이다. 오히려 학회 그 자체에서 보다는 공식적인 발표회가 끝난 뒤에 밤을 달려 나누는 일상의 대화가 더 재미있고 유익했다고 말하는 편이 보다 솔직한 심정이 될 것이다.

얼마전 철학을 전공으로 하는 어떤 사람이 일반독자는 물론이거니와 동료들마저도 서로의 글을 철저히 외면하는 학문풍토가 팽배해 있음을 꼬집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문헌정보학계에서는 매년 수많은 학술논문이 발표되고 있지만, 현장의 사서들은 이런 글들을 별로 읽지 않고, 읽어도 별다른 도움을 얻지 못한다. 따라서 강단은 강단대로 율타리를 치게 되며, 현장은 주변의 언저리를 맴돌게 된다. 강단과 현장이 남남이 되어버린 지금, 강단은 남(현장)의 이야기를 우리(강단)끼리 하게 되고 - 현장이 강단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 여기에 지친 사람들은 또 다른 남(외국)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에 촉각을 세우게 되며, 현장은 현장대로 수공업적 장인정신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논문이라고 해서 단조롭고 딱딱한 문체로, 개인의 감정이나 느낌을 완전히 숨김채 써 나가라는 법은 없지 않은가? ‘나’라는 말을 ■ 버림으로써 객관과 보편으로 위장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땀땀이 드러냄으로써 더욱 사실에 접근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논문이라는 형식의 글쓰기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글쓰기이며, 오직 논문을 통해서만 학문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처럼 관행화되고 고착화 되어버린 논문일변도의 글쓰기에 대해서 회의해 보는 것이 전혀 의미없는 일일까?

글쓰기란 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글쓰기의 혁신은 또한 무엇인가? 글쓰기의 혁신은 왜 필요하며, 글쓰기를 혁신한다고 했을 때 그 혁신의 대상은 무엇인가? 우선은

1) 김영민, “논문중심주의와 우리 인문학의 글쓰기,” 문학과 사회(문학과 지성사), 제7권 4호(1994), p. 1265.

제시기술 또는 표현양식으로서의 문체의 문제가 떠오른다. 다시 문체라는 그릇에 담길 내용이 떠오르고, 그 내용을 풀어내갈 연구방법도 글쓰기 범주에 묶여질 수 있다. 이 세가지 문제는 따로 분리하여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것으로 글쓰기의 범주에 대한 정의가 정교하고 치밀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논의가 결실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은 없다. 오히려 뜻풀이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삶의 원천적 복잡성과 애매성이라는 실상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

그렇다면 글쓰기는 어떻게 하면 재미있고 널리 읽힐 수 있는 것인가? 이와 더불어 문헌정보학 강단의 언어가 도서관 현장에 다가서기 위한 현단계의 조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아닌 흥미이다. 도서관에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흥미란 바로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이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도서관, 어제의 도서관도 미래의 도서관도 아닌 바로 오늘의 도서관, 추상적이고 이론적이어서 어렵고 딱딱한 이야기가 아닌 구체적이어서 눈앞에 보이는 바로 그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 말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이렇다. 흥미있는 글이 되기 위한 조건, 첫째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일 것, 둘째 현장중심적일 것, 셋째 쉬울 것. 이를 두고 어떤 저자는 다음과 같이 멋있게 표현하여 우리의 공감을 산 바 있다.

“흥미는 입상성, 독자의 자긍심, 그리고 쉬움에서 나온다.”²⁾

여기에 글쓰기의 문제가 존재한다. 과연 문헌정보학계에서 나온 글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현장중심적인 글쓰기인가? 그리고 절차나 방법, 내용이 도서관쟁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쉬운 것인가? 글쓰기의 주제와 글쓰기

2) 이 부분은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가 주관하는 제7회 문정포럼(1995. 5. 19)에서, 부산에서 한국인 문헌연구회를 이끌고 있는 김영민이 한 말이다. 이 날 그가 읽은 글의 제목은 “原典중심주의와 우리 인문학의 글쓰기”였다.

의 방법과 글쓰기의 제시기술에 관련된 문제제기의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요즈음 필자들의 관심사의 한 줄기는 바로 이 글쓰기에 관련된 문제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글쓰기의 문제에는 테마의 문제와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법론의 문제, 그리고 그 제시기술의 문제까지 용해되어 있다. 따라서 글쓰기의 혁신을 이야기함은 테마의 혁신과 방법론의 혁신을 포괄할 수 밖에 없다. 문헌정보학 연구에 있어서 주제와 방법론, 그리고 그 제시기술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느낌에서 이 글이 비롯된 것이다. 그렇다면 필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하는가? 그리고 이를 풀 수 있는 방법과 자료가 있는가?

여기서 필자들은 현상학적인(phenomenological) 접근을 시도해 보려고 한다. 현상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현상과 경험에 관한 연구이고, 현상학적 접근이란 경험의 의미를 밝히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글의 주된 자료가 되는 필자들의 경험은 무엇인가?

이 글은 공동연구이다. 길다면 긴 학문생활을 해 온 사람과 몇년의 현장경험을 지속하면서 갓 학문에 발을 들여 놓은 사람이 함께 진행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 주로 하고 다른 한 사람이 뒤를 봐 주는 그런 공동연구가 아니라 들어서 아이디어 하나, 자구 하나까지 씨름을 한 결과이다. 이 글 한편을 위한 씨름이 아니라 글쓰기의 범주에 포함되는 삶을 10여년 함께 해 왔다. 두 사람의 필자 뿐만 아니라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의 공동작업실 멤버 대부분의 삶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 글의 내용은 공동작업실이 그동안 매주 수요일 저녁의 수요모임과 매 학기마다 밤새 열리는 토론마당 등을 통해서 글을 읽고 쓰고 토론하고 실천해온 공동의 경험 속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필자들의 이 경험은 학문의 실천성 모색이라는 하나의 꼭지점으로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경험속에서 건져낸 화두가 바로 연구 주제의 혁신, 연구방법의 혁신, 문체의 혁신이며, 이들은 글쓰기의 혁신이라는 하나의 담론틀로 모아진다.

II. 우리의 이야기를 하자-적실성

문헌정보학이란 동어반복이긴 하지만 문헌정보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문헌정보현상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곳은 도서관과 관련기관들이다. 따라서 도서관과 관련기관들에 대해서 말하고 글쓰는 것이 문헌정보학이다. 정치(精緻)하지 못한 이런 정의를 참아낼 수 있을 만큼 성숙된 독자라면, 여기서 문헌정보학의 실천성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공동작업실에서는 그동안 문헌정보학의 실천성이라는 주제를 놓고 여러가지 실험을 해 왔다. 그 실험의 궤적을 찾는 일은 어렵지 않다. 외침 만큼의 반응은 없었지만 <학기논고집>이 남아 있는 것이다. 그동안 학문의 실천성을 모색해 오면서, 문제를 발견하고 살을 붙이고 이론적 배경을 찾고 인접 인문·사회과학의 동향을 관찰하고 이름을 붙여온 과정들이 하나의 여과없이 그대로 여기에 담겨있다.

<학기논고집>은 1989년 이후부터 주로 논고의 형태로 생산된 것을 1991년부터 1년에 한번 꼴로 엮어 온 것으로 올해 2월에 다섯번째 묶음이 나왔다. 지금까지의 논고집들을 들추어보니 참으로 많은 말들을 해 왔고, 그 말들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해 왔다고 생각된다.

첫번째 논고집(1991. 12)의 머리말(학기논고집을 엮으면서)에는 다음과 같이 묻고 대답하는 내용이 나온다.

한국의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생산되는 연구들은 한국이라는 현실분석에 의한 문제인식과 실천가능한 이론생산에 철저한 것들인가? 연구자들은 현장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정책대안이나 발전모델들의 개발을 연구의 목표로 설정하려는 노력을 하는가?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은 외국에서 생산된 선진이론들을 도입하여 객관적 검증작업을 도외시킨 채 한국의 현장에 무리하게 적용하려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뉴욕의 공공

도서관이나 하버드대학 도서관을 전제로 생산된 이론들을 한국의 도서관에 그대로 적용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의 현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 우리의 현장에 적용되어 그 발전에 복무할 수 있는 이론개발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처럼 1991년 겨울에 다소 현학적이고 조금은 당당한 물음으로 첫 말을 시작했다. 이때 논고집에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말은 '적실성'이었다. 우리 현실에 맞는 학문을 하자는 것이었다. 이 말은 학문의 실천성을 담보해 내기 위한 첫번째 해결 과제로서 자연스럽게 와 닿았다. 그렇다면 한국의 문헌정보학에 있어서 적실성 있는 학문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질문은 다음해 여름 제2집(1992.8)이 나오기까지 무거운 짐이 되어 다가왔다. 좀더 사고의 깊이를 심화시키고 그럴듯한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는 조바심에 사로잡히기도 하였다. 검증과 확신의 과정도 필요했다. 우물 안에서 바라본 하늘이 다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은지, 비 오는날 태어났다고 해서 온 세상은 내내 비만 온다고 떠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편, 이 시기는 공동직업실이 적실성있는 학문을 하기 위하여 인접학문의 동향에 대한 관찰과 우리의 구체적 현실에 대한 조사와 토론이 집중된 시기였으며, 그에 상응하는 실천이 개시된 단계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필자들은 학문의 실천성 확보라는 큰 테마 아래 찾아낸 적실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키고 그 폭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인접학문의 동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우선 필자들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정치학과 사회학의 움직임에 관심을 집중시켰으며, 다음으로 법학 쪽으로도 관심을 확대하게 되었다. 이들 인접 분야에서는 당시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러한 물음들을 비교적 일찍 던지고 어느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 상태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문제를 풀기위해 서양을 바라보는 것 보다 우리나라 인접학문의 동향을 살피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었음에 틀림없다. 이들 분야들이

적실성에 대한 반성과 자생력을 확보해 가는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필자들이 하고 있는 작업에 어느정도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으며, 격려도 많이 받았다.

필자들은 적실성이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꽤나 먼 길을 돌아왔다.³⁾

Ⅲ. 인접학문의 자생력 기르기

해방과 함께 우리나라에 근대적인 학문이 도입된지 50년에 이른다. 자생 보다는 이식의 형태로 시작된 우리나라 인문·사회과학계는 한국이라는 토양에서 얼마만큼의 적실성을 확보하고 있을까? 이들은 한국적인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논리와 언어를 어느정도 찾아내고 있는가? 8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의 인문·사회과학계에는 반성적인 기운이 폭넓게 자리잡기 시작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선진 이론과 방법에 얽매어 식민지적 지식을 재생산 해내는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음을 스스로 반성하면서, 이러한 구조를 탈피하고 보다 적실성 있는 학문을 하기위한 노력들을 진행해 오고 있다. 필자들과 공동작업실 멤버들의 관심은 이러한 흐름에 대해 처음에는 주로 정치학과 사회학, 법학에 치중되어 있었지만, 그 이후로 행정학, 교육학, 언론학, 여성학, 인류학 등으로 확대되어 갔으며, 지금도 이들 분야에서 새로운 흐름이 감지되면, 이를 바로 구해서 읽고,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탈식민성 담론들에 대한 서지들을 망라적으로 추적·조사하여 그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며, 이를 종합하는 참고서지의 작성을 위한 <한국사회과학의 탈식민성 담론에 관한 서지연구, 1945-

3) 이 대목에 있어서 필자들 생각의 발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면 지금까지 나와있는 다섯권의 학기논고집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공동작업실, 학기논고집 제1집(1991), 제2집(1992), 제3집(1993), 제4집(1994), 제5집(1995). (부산: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1995)라는 제목으로 프로젝트화되어 추진되고 있다.⁴⁾

지금까지 공동작업실에 의해 발견된 이러한 담론들을 핵심문헌을 중심으로 분야별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학〉

金晉均. “민족적 민중적 학문을 제창한다”, 80년대 한국인문사회과학의 현단계와 전망(서울:역사비평사, 1988). pp.13-25.

金晉均. “한국 사회과학의 현재적 과제”, 社會科學과民族現實(서울:한길사, 1988). pp.13-27.

金晉均. “한국사회학, 그 물역사성의 성격”, 社會科學과民族現實(서울:한길사, 1988). pp.28-52.

신용하. “독창적 한국사회학의 발전을 위한 제언”, 한국사회학 제28집(1994). pp.1-15.

〈행정학〉

박동서. “한국행정학의 과제와 행정학의 재정형”, 한국행정학보 제26권 4호(1992). pp.1429-1435.

백완기. “한국적 행정이론의 성립가능성 모색”, 한국정치학회보 제21집 2권(1987). pp.153-173.

4) 한국사회과학의 탈식민성 담론에 관한 서지연구. 1945-1995는 1995년도 한국민족문화연구소(부산대학교)의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김정근이 책임연구자로서 연구의 전체를 총괄하고 있으며 다른 한 사람인 김영기는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대규모 연구에는 김영기 외에도 공동작업실의 여러 구성원들이 다음과 같이 사회과학의 하위분야들을 담당하여 연구보조원 팀을 구성하고 있다.

이수상(박사 3) : 사회과학 일반

류준경(박사 3) : 경영학, 경제학, 심리학, 지리학

김영기(박사 2) : 사회학, 여성학, 인류학

이용재(박사 1) : 정치학, 행정학, 법학

김중성(석사졸) : 교육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문헌정보학

이 연구계획과 관련하여, 鄭永求 기자, “한국사회과학 學問 독자성 진단, 국내처음 脫식민성 사적분 석, 韓國的 방법론 토대구축 기대.”, 부산매일(1995. 5. 15)도 참조하라.

안병영. "한국의 행정현상과 행정학연구의 주체성", 한국정치학회보 제12집 (1989). pp. 49-66.

안병영. "한국행정학의 탈정치적 접근과 문화적 편향성", 한국사회과학론(서울: 대왕사, 1983). pp. 141-166.

이종범. "행정학의 토착화에 관한 논거", 한국행정학보 제11호(1979). pp. 798-223.

이종범. "한국행정학연구의 방향과 과제-문화적 차이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보 제13집(1979). pp. 67-79.

〈교육학〉

이종각. "외국어론의 도입과 교육이론의 토착화", 교육학연구 제21권 1호 (1983). pp. 67-82.

이종각. 한국교육학의 논리와 운동(서울: 문음사, 1990).

〈언론학〉

이효성. "언론학의 한국화를 위한 시론", 한국적 커뮤니케이션모델 연구: 커뮤니케이션이론 토착화(서울: 한국언론학회, 1993). pp. 198-214.

〈법학〉

배종대. "우리법학의 나아갈 길-형법학을 중심으로", 법과사회(창작과비평) 창간호(1990). pp. 220-250.

차용석. "우리법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법과사회(창작과비평) 창간호(1990). pp. 251-260.

〈정치학〉

정해구. "한국사회현실과 한국정치학", 80년대인문사회과학의 현단계와 전망(서울: 역사비평사, 1988). pp. 100-112.

진덕규. "한국의 정치학을 위하여", 한국사회 연구 제1집(1983). pp. 65-88.

〈인류학〉

조혜정.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읽기와 삶읽기. 또 하나의 문화. 제1권, 바로 여기 교실에서(1992); 제2권, 각자 선 자리에서(1994); 제3권, 하노이에서 신촌까지(1994).

IV. 기본으로 돌아가자-주제의 혁신

남의 이야기는 그만하고 이쯤에서 다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가자. 인접 학문이 스스로의 자생력을 길러나가는 노력에 대한 확인과정을 통해서, 학문의 실천성을 담보해 내기 위해 설정된 적실성 논의가 어떻게 자리잡게 되었는가?

우리나라에 문헌정보학이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잡아 그 양적팽창을 거듭해 온지 40년에 가까와 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문헌정보학은 한국 인문·사회과학계 전반이 안고 있는 문제의 연장선상에 놓여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즉 한국 문헌정보학 역시 대체로 미국학문의 영향하에서 답습되고 발전해 왔기 때문에, 한국의 문헌정보 현상이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며,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객관적 연구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현실진단의 부재에 따른 연구자들의 책임방기라는 질타를 면하기는 어렵다.

텔레비전 화면에 가끔씩 중국의 천안문 거리가 비춰질 때가 있다. 그 넓은 거리가 자전거의 홍수로 넘쳐나고 있는 장면을 본다. 아마도 그들에게 있어서 교통정책은 자동차 연구 보다는 자전거 연구가 더 절실할 것이다. 식량이 부족하다면 아이스크림에 관한 연구가 전혀 필요없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자들은 쌀과 보리의 증산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전거와 쌀·보리의 문제는 절실하고도 기본이 되는 과제이다. 문헌정보학 연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논제부터 현장

에서 절실하고 기본적인 것을 택해야 한다.

당시 필자들은 이러한 요청에 '기본개념'으로 대답했다. '기본개념'은 '기본의 실천'과 '특수성의 확보'로 요약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약간의 논의를 덧붙인다면, 먼저 '기본의 실천'이란 우리나라 도서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초로서 제시된 것으로서, 우리 현장의 역사적 경험속에서 합의되어온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찾아서 실천하는 것이 그 해결의 시작임을 의미한다. 이는 국수의 고집과 외국의 동경을 지양하며, 고전적 도서관 또는 개체도서관의 완성이 해결의 주요고리가 된다는 내용이다. 한편 연구자는 문제제기에서부터 결론까지를 우리 현실에서 이끌어 내어야 하는, '특수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즉 더이상 미국의 귀납적 결과가 우리의 보편으로 나타나는 연역의 오류를 범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우리 현장의 특수성을 정확히 인식한 다음 이를 토대로 진행된 결과를 보편화시켜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러한 '기본개념'의 적용을 통해서 현장에서는 개체도서관의 완성이, 학문연구에서는 우리 특수성의 인식이 그 출발점이 되는 전망을 내어오게 된다. 이러한 전망은 원론과 현실의 일치로부터 시작되어 이상과 현실의 일치로 완결될 것이다.

주로 학기중의 수업과 공동작업실 멤버들의 수요모임을 통해서 살을 찌워가던 이 개념은 그 이후 구체적 대상을 찾아 학위논문으로 발전되었다. 여기에는 공공도서관의 기본이용자층의 확보를 주장한 필자중의 한사람인 김영기의 논문, 대학도서관의 기본장서 확보를 주장한 김종성, 이용재의 논문, 그리고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현단계를 사서의 일상적 의식세계를 통해서 밝혀낸 장덕현의 논문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에 기본이용자 개념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밝히고 있는 김영기 논문의 한 부분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두말 할 필요도 없이 공공도서관의 이용자는 지역주민이다. 연구에 따르면 부산지역의 계급별·계층별 구성분포는 노동자계급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공공도서관의 주된 이용자는 학생층과 주부계층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의 공공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공공도서관의 이용자연구는 주로 현재적 이용자인 학생과 주부계층을 중심으로 한 도서관 이용행태에 집중되어 있다. 현장의 사서들 역시 현재적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 봉사프로그램을 주로 실시하고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기본이용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전환의 방향으로서 기본이용자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⁵⁾

기본장서 개념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에게 기본장서가 있는가? 개체도서관이 의도적으로 체계에 따라 구축해 온 기본장서와 특성화가 되어 있는가? 이런 상태에서도 진산화를 통한 자료의 공유와 상호이용을 말할 수 있는가? 개체도서관을 어느정도 완성시킨 서양이 말하는 상호대차와 한번도 제대로 된 도서관을 가져보지 못한 우리가 말하는 상호대차는 그 의미가 다르다. 자책 고객의 기본적인 장서욕구도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도서관은 남의 고객을 시중들 여유가 없다. 밥과 기본적인 반찬은 스스로 해결하고, 특별한 반찬 한 접시가 답을 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매일 밥을 빌어 먹을 것인가? 끼니마다 김치와 된장을 구걸할 것인가? 김종성은 교육학에서 밥 짓는 이야기를, 이용재는 정치학에서 김치 담그는 이야기를 그들의 논문에서 풀어 내었다.

도서관학 연구자는 현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용한 연구를 해야하며 연구의 결과는 도서관의 운영주체인 사서진에게도 유용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현단계의 현장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청되는 문제를 연구함으로써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⁶⁾

이와 함께 필자들과 공동작업실 멤버들은 우리 내부에서 형성된 인식지평을 확인

5) 김영기. "도서관현상을 통해 본 공공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인식의 문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1993, pp.64-65.

6) 김종성. "부산대학교도서관 교육학장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1994, p.1.

하고 그 인식을 폭넓게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외부인사와 함께하는 ‘토론마당’을 마련했다. 그 이후로 이 토론마당은 매년 여름과 겨울에 정기적으로 개최하게 되어 토론없는 시대에 조그마한 담론의 장을 형성하고 있다. 당시의 토론마당 주제발표 부분을 보면 학문의 실천성에 대한 고민의 진척단계를 알 수 있다.

한국사의 질곡과 더불어 한국의 학문들은 외국으로부터 도입·발전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현실과 잘 조화되지 못하는 현상을 초래해 왔으며 문헌정보학도 이 점에서 예외가 아니다. …기존의 학문방법론이 왜 현실변화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현실과 학문간의 간격만 넓혔으며, 현장에는 패배감이, 강단에는 고급을 가장한 사이비 아카데미즘이 팽배하게 만들었는지 진솔한 반성과 고민이 있어야 한다. …한국 문헌정보학 강단에서 가르치는 많은 교수들이 현장경험을 가진 사람들이고 현장경험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문이 현장의 기본적인 문제를 잘 지적하고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지금 한국현실에 부적합한 방법론을 극복하고 학문의 유효성과 현장의 침체를 동시에 개선할 대안으로 실천을 전제로한 학문연구 방법이 요구된다. …실천적 방법론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과 과학성을 끊임없이 확신하고 확보해 나가야 한다. …실천적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테마들을 개발하고 그에 입각한 연구를 실천해야 한다. …공동체적 실천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⁷⁾

V. 원장 담그는데 전자렌지를?

한편, 필자들이 적실성 있는 학문, 현장개척에 유용한 학문을 한다고 했을 때, 또는 기본문제로 돌아가자는 주제의 혁신을 제창했을 때 이러한 논제를 풀어나가는 방법과 자료는 무엇인가? 연구를 할 때 각각의 상황에 따라 그 상황에 맞는 접근방

7) 이 부분은 1992년도 여름 토론마당 ‘韓國 文獻情報學 어떻게 할 것인가?—실천적 학문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하여’ (1992년 7월 25일, 장안사 계곡 민박집)에서 김종성이 발제를 하는 가운데 제시하였다. 김종성의 발제 전부와 그에 따른 이수상, 류준정, 김영기, 장덕현, 전혜영의 토론내용은 학기는고집 제2집(1992), pp. 139-164에 실려있다. 관심있는 독자들의 참조를 바란다.

법을 찾아서 시도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대할 수 있는 연구방법은 설문지법이라든가 측정을 통한 타당도 조사 등이 그 대부분을 이룬다. 연구대상을 선정하고, 표본을 추출하고, 설문지를 배포하여서는, 그것을 통계처리한다. 문헌정보학의 연구방법론을 다루고 있는 책을 훑어보면 가히 통계처리법이라 할 만하다. “안다는 것은 측정하는 것이다.” 라는 숫자의 유혹에 너무 깊숙히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가끔씩 제목만 보고 책을 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분명히 재미 있어야 할 또는 재미있어 보이는 제목들은 흔히 우리의 도서관살이를 제대로 다루지도 못한 채, 방법론적인 신중성이나 측정, 통계분석만을 강조하고 있어 독자의 기대를 무너뜨리곤 한다. 연구자들 사이에 만연되어 있는 방법 중시풍조를 보면서, 그렇게 중시하는 연구방법이 획일화되어 있는 아이러니를 발견하고 힘없이 고개를 흔들기도 한다.

이러한 사례는 자연과학적 연구방법의 남용이며 오용이다. 즉, 자연과학과 공업 기술의 발전이 근대 산업사회를 이끌어왔으며, 이에 따른 자연과학에 대한 무한한 신뢰의 바탕위에서, 자연현상을 관찰하는 방법을 철학이나 사회현상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는 식의 방법론적 일원주의가 아무런 반성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과학주의적 방법론 일색의 사회과학 연구문헌이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다음의 다섯가지이다.⁸⁾

첫째는 연구자들은 가능한한 냉정하고 객관적이어야만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들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세계 또한 매우 신뢰할 만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과학적 절차의 객관성이 가능한 것 자체가 우리의 주관적 경험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하고 있다.

8) L. S. Barrit, T. Beekman, H. Bleeker and K. Mulderij, *A Handbook for Phenomenological Research on Education*; 홍기형 역, *교육연구와 현상학적 접근*, 서울, 문음사, 1990, pp.36-57.

둘째,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자신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존재하는 모든 것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특히 인간의 감정을 측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과학적 연구방법을 따르는 사회과학자들은 구체적 사실과 의미의 회생이라는 댓가를 치러서라도 '정확성'에 도달하려고 애쓰고 있다.

세째, 실험조건을 통제해야만 한다고 한다. 그러나 사회과학에서 살아 움직이며 의식을 갖고 있는 인간이란 관찰자를 통제하는 것은 그 결과를 더욱 미심쩍고 불확실하게 만든다.

네째는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연구절차를 수행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즉 소집단을 통한 연구의 결과가 모집단으로 일반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사는 시간, 장소, 또는 문화적 배경에 따라 변하는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해야만 한다. 어떤 진술이 일반적이면 일반적일수록 그것을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적어지기 마련이다.

다섯째로 미래에 대해 예측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한다. 사람들은 측정과 통제가 적절하고 정확하다면 충분히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정확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상황을 무자비할 정도로 축소시켜야만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식이 과연 개척기에 있는 한국의 도서관 현실을 읽어내기에 적합한 것들인가? 필자들의 경험에 의하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현단계를 밝힌 다든가 기본이용자, 기본장서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데에는 변인을 통제하고 표본을 추출하여 0.01의 오차를 이야기하는 식의 통계적 방법이라든가 설문지를 돌리는 방식, 또는 가설검증식의 방법은 그다지 적합하지는 않았다. 여기에는 문화사의 표층논리를 진위의 잣대로서 평가할 수 없듯이 이처럼 막연하고도 추상적인 느낌을 잡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론적, 기술적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필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연구방법을 모색하게 만들었다. 제맛이 우리나라는 된장을 뜨기 위해서는 장독이 필요했다.

VI. 질적연구

연구방법론과 관련하여 처음 관심을 가진 부분은 연구에 사용되는 자료에 관한 것이었다. 이때부터 필자들과 공동작업실 멤버들은 참여관찰과 심층면접 등에 기초하는 연성자료를 주로 사용하여 사례연구를 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던 도중에 질적연구라는 도도한 강물을 발견하고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해 나가는 연구방법이 바로 이것이었구나'하는 탄성을 질렀다. 관심을 갖고 찾아보니 질적연구에 관련된 자료는 의외로 많이 발견되었다. 학기논고집 제5집(1995. 2)은 질적연구와 관련된 풍성한 논의들로 꽉 차 있다.

공동작업실에서는 매주 수요모임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질적연구에 관련된 글들을 발굴하고 함께 읽어오고 있다. 아래의 글은 지금까지의 지배적인 연구기법들과 필자들이 찾고자 하는 연구방법과의 차별성을 간략하게 드러내어 주는 부분이다.

...촉점이나 조작적 정의, 변인, 그리고 경험적 사실 등에 의해 지배되어 오던 분야가 귀납적 분석, 기술(description), 그리고 사람의 지각 등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변하고 있다. ...참여관찰이나 심층면접과 같은 질적 연구기법들은 ...특히 사회학과 인류학 분야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자주 적용되고 있다.⁹⁾

...수량화를 통한 교육현상의 이해라는 점에서 소위 양적접근이라고 불러주는 이 접근법은 과거 오랫동안 교육연구를 지배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인간현상과 자연현상의 현저한 차이가 지적되면서 인간현상의 독특한 영역에 적합한 연구접근이 제안, 시도되어 왔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인간 개개인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각 개인의 특유의 경험세계가 있는 그대로 의미 있게 그리고 가치롭게 연구되고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¹⁰⁾

9) Robert C. Bogdan, and Sari Knopp Biklen,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Boston, Allyn and Bacon, 1982.; 신옥순 역, *교육연구의 새 접근: 질적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1981. 저자서문.

10) 위의 책. 역자 신옥순의 서문.

자연과학의 발달에 힘입어 사회현상 조차도 수량화를 통해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소위 양적 접근이 오랫동안 사회과학의 일반적인 방법론이 되어왔다. 그러나 최근에 각 개인의 특유의 경험세계를 있는 그대로 연구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방법이 대두되기 시작했는데 기존의 양적연구에 대비하여 이를 질적연구라고 부르고 있다. 아래에 제시한 것은 지금까지 필자들과 공동작업실에서 찾아내어 함께 읽고 토론을 벌여오고 있는 질적연구 관련 서지들이다.

Barrit, L. S., Beekman, T., Bleeker H., and Mulderij, K. *A Handbook for Phenomenological Research on Education*. ; 홍기형 역. *교육연구와 현상학적 접근*(서울 : 문음사, 1990).

Bogdan, Robert C. and Biklen, Sari Knopp.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Boston : Allyn and Bacon, 1982). ; 신옥순 옮김. *교육연구의 새 접근 : 질적연구*(서울 : 교육과학사, 1981).

Bryman, Alan. *Quantity and Quality in Social Research*(London : Routledge, 1988). ; 홍동식, 조정문, 고승한 역. *사회연구에 있어서 양적방법과 질적방법*(부산 : 전문출판사, 1992).

Fidel, Raya. "The Case-study Method : A Case Study", *LISA* 6. pp.273-288.

Glazier, Jack D.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ies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An Introduction" *Qualitative Research in Information Management*(Libraries Unlimited, 1992). pp.1-13.

Glazier, Jack D. & Powell, Ronald R. *Qualitative Research in Information Management*(Englewood : Libraries Unlimited, 1992).

Glesne, Corrine & Peshkin, Alan. *Becoming Qualitative Researchers-An Introduction* (Halow : Longman, 1992).

Grover, Robert & Glaser, Jack. "Implications for Application of

- Qualitative Methods to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LISA* 7(1985). pp.247-260.
- Harris, Michael H. “The Dialectics of Defeat : Antinomies in Research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ibrary trends*. Vol.34(1986). pp.514-534.
- Merriam, Sharan B. *Case Study Research in Education : A Qualitative Approach*(San Francisco : Jossey-Bass Publishers, 1988). ; 허미화 역. *질적사례연구법-교육학에서의*(서울 : 양서원, 1994).
- Odi, Amusi. “Creative Research and Theory Building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ollege & Research Libraries*. Vol.43(1982). pp.312-319.
- Van Manen, Max.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New York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0). ; 신경림, 안규남역. *체험연구-해석학적 현상학의 인간과학 연구방법론*(서울 : 동녘, 1994).
- Weinberg, Steve. “Paper and People Trails : Qualitative Approaches for Journalism Investigators”, *Qualitative Research in Information Management* (Englewood : Libraries Unlimited, 1992). pp.51-60.
- Yin, Robert K. *Case Study Research : Design and Methods*(Beverly Hills : Sage Publications, 1984).

Ⅶ. 방법의 혁신

공동작업실에서 생산된 일부 석사학위논문의 성격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이 글에

서 말하는 주제의 혁신, 연구방법의 혁신에 대한 우리의 인식정도와 긴밀히 상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본개념의 시범적 적용과 연성자료의 이용을 통한 질적연구의 흔적을 학위논문에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필자중의 한사람인 김영기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볼 수 있다. 참여관찰과 인터뷰, 현장회의의 참관, 사조직의 참여, 내부문서 및 개인문서 등을 주된 자료원으로 하여 공공도서관에 기본이용자 개념이 필요함을 드러내 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문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학문의 실천성 담보를 위한 적실성의 전제가 당시 우리 논의의 주류였으며, 기본개념은 겨우 맹아적인 상태였다. 더우기 질적연구에 대해서는 의식의 눈이 아직은 활짝 뜨여 있지 않은 상태였다. 다만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에는 기존의 양적인 연구방법이 솔직히 필자들은 문헌정보학계에 만연되어 있는 연구방법이 양적연구의 전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적절하지 않다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질적연구로의 귀착은 예정되어 있었다. 질적연구라는 큰 통로를 발견하고 여기에 대한 어느정도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생산된 논문들은 그 전의 논문들과 그야말로 '질적인' 차이를 보여준다. 장덕현은 사서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깊이있는 관찰을 통해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현단계를 하나의 드라마로 그려내었다. 다음의 글은 그가 연구방법의 타당성 문제를 고민한 흔적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은 공공도서관의 본질적 목적과 이용자의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공공도서관의 본질적 목적은 자료와 정보봉사인데 반하여 실제 공공도서관 이용자는 공부할 자리를 얻기위해 온다는 것이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특정 공공도서관을 선정하여 '이용자' 2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로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은 자리를 위해 도서관을 찾고 있으므로, 이 도서관의 활동은 도서관의 기본목표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남은 것은 이른바 '상식의 부연'

이다. 과학의 잣대를 갖다대지 않아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양화적 조사에서 ‘과학적 방법’은 아무것도 제시해 주지 못한다. 오히려 ‘연구를 위한 연구’이지 않은가 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¹¹⁾

이 연구의 수행은 기존의 개념이나 척도만으로 구체적인 현실을 쉽게 도식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극복하고 우리의 문제에 답하는 현실분석법과 우리의 현실에 복무하는 연구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한 하나의 실험의 의미를 지닌다.¹²⁾

김종성과 이용재 또한 실무자로서 관찰자로서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교육학과 정치학 관련 서가들의 과거와 현재를 질적인 눈으로 분석해 내었다.

연구방법은 연구과제의 성격과 연구목적에 적절한 것이 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가 지향하는 기본적인 입장은 귀납적인 연구방법이다. 가설검증과 같은 연역적 연구방법을 지양하고 존재하는 현상과 사실을 종합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방법을 취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학교와 도서관 등에서 생산한 온갖 경험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이용자와 사서를 직접 면담하여 그들의 인식을 끌어내고 직접 장서를 살펴 그 상황을 기술하는 질적연구의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문제해결 방법은 철저하게 그 문제의 성격에 근거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연구방법에 대한 엄밀한 검토없이 행해진 연구결과들은 본질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연구행위에 그칠 수 있는 것이다.¹³⁾

여기에서 연구자가 취하는 조사방법은 귀납적 방법이다. …심층적 면담을 통해 대담자의 인식과 과거 및 현재 사실이 왜곡되거나 과장되지 않게 드러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대담자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그들의 진솔한 구술을 청취하여 기록한다. 연구자가 대담자의 구술

11) 장덕현, “사서의 일상적 의식세계를 통해 본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현단계-부산·경남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1994, p. 19.

12) 위의 글, p. 24.

13) 김종성, 앞의 글, pp. 6-8.

에 개입하는 것은 대담자의 기억을 돕기 위해 역사적 자료를 제시하는 정도이다.¹⁴⁾

어쩌면 질적 연구에 대한 지루한 설명 보다는 이들의 논문을 보는 편이 필자들이 말하는 질적연구에 대한 이해를 더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자료는 사람들과 장소, 대화내용들에 대한 풍부한 기술적(descriptive) 자료이며 통계적 절차에 의해 쉽게 취급될 수 없는 연성적인 성격을 가진다. 연구문제는 변인을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절차가 아닌 상황속의 모든 변인들간의 복합적인 관계속에서 설정된다. 질적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연구자는 나름대로의 연구초점을 설정하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답을 얻기 위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연구문제나 검증할 가설을 미리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또한 연구대상자 나름의 기준에 비추어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고자 노력한다.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변인들은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그들은 연구대상자들이 일상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바로 그 환경 속에서 이들과 지속적인 접촉을 함으로써 연구자료를 모으는 경향이 있다.¹⁵⁾

질적연구의 가장 잘 알려진 대명사는 참여관찰법과 심층면접법이다.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를 위해 알고 싶고, 알려지고 싶고, 그리고 신뢰를 받고 싶은 사람들의 세계에 들어가 자기가 듣고 관찰하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한다. 나아가 현장에서 발행하는 보고서나 계획서, 안내문, 신문기사, 사진 등과 같은 자료들도 보충적인 자료들로 활용한다.¹⁶⁾

한편 질적연구에 있어서의 면접에서는 질문지는 사용되지 않는다. 가끔 대략적으로 고안된 면접지침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연구자 자신이 유일한 도구이며 연구대상자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면접이 구사된다. 또한

14) 이용재, "부산대학교도서관 정치학장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1994, pp. 8-9.

15) Bogdan and Biklen, 신옥순 역, 앞의 책, pp. 10-11.

16) 위의 책, p. 11.

질적연구는 세부적이고 깊은 내용을 추구하기 때문에 연구대상자의 수가 적은 것이 대부분이다.¹⁷⁾

한편 이러한 질적 연구는 양적연구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¹⁸⁾

첫째, 질적연구에서는 자연적인 환경이 자료의 직접적인 근원이며, 연구자 자신이 주된 연구도구이다. 자료는 연구자가 바로 그 장소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해를 전제로 하여 수집된다. 또한 연구자의 통찰력이 분석을 위한 주된 도구이다. 인간행동은 그 행동이 일어나는 바로 그 상황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연구자는 어디든지 가능한 한 그 곳에 직접 가서 보고 연구해야 한다.

둘째, 질적연구는 기술적이다. 자료는 숫자가 아닌 말이나 그림의 형태를 띤다. 자료에는 면접내용을 전사한 자료, 현장노우트, 사진, 비디오테이프, 개인적 소품, 메모, 다른 공식적인 기록 등이 포함된다. 질적접근에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쓸모 없는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이 연구주체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셋째, 질적연구자들은 결과나 산물보다는 과정에 관심을 가진다.

네째, 질적연구자들은 모은 자료를 귀납적으로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미리 가지고 있던 가설을 입증하거나 부인하기 위해 자료와 증거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구자가 모은 낱말의 구체적인 자료들이 통합되어 분석됨으로써 그 체계가 드러나게 된다. 질적연구자에게는 연구의 방향이 자료수집이 거의 끝날 무렵에 그리고 연구대상자들과 이미 많은 시간을 보낸 후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질적 연구자는 연구를 통해서 중요한 연구문제를 찾아내게 된다.

다섯째, 질적연구에 있어서는 의미가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다. 즉 질적연구자들은 참여자들의 관점에 관심을 가진다. 또한 그들이 참여자들의 관점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한다.

17) 위의 책, p. 12.

18) 위의 책, pp. 43-49.

VIII. 우리식 글쓰기-문체의 혁신

실천적 학문방법론을 모색해 오면서 연구테마의 문제를 이야기 하고 연구방법의 문제를 고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글쓰는 방법, 즉 표현과 제시기술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기본의 문제, 연성자료를 이용한 질적연구의 수행, 이러한 드라마를 그려 내는 데에는 딱딱한 과학주의적인 문체는 걸맞지 않았다. 다시금 문체의 혁신이 필요해진 것이다. 이 부분은 연구주제나 그 방법의 문제에 비해 공동작업실 구성원들 사이에서 아직은 실험적인 단계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필자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를 제시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은 아니라고 본다. 이 부분에서 필자들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딱딱한 과학주의적 문제의 대명사인 ‘논문중심주의’라는 형식의 문제와 권위있는 원전에 기대어 진출한 자기주장을 펼치지 못하는 ‘원전중심주의’의 문제이다.¹⁹⁾

우선 형식의 문제에 있어서 필자들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이전에도 이와 관련된 몇편의 구절을 대한 적이 있다.

지금 우리는 학술논저 글쓰기를 혁신해야 한다. 그래야 발상의 전환이 가능하고, 새로운 착상을 생동하게 나타낼 수 있다. 이치의 근본을 창의적으로 논하는 것이 학문의 근본과업임을 분명하게 하면서, 근본을 살리는 외형적인 방법은 얼마든지 다채롭게 개발해야 한다. 편지글도 쓸 수 있고, 문답도 택할 수 있고, 도설을 재현할 수도 있고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하는 창작을 할 수도 있다. 그런 글은 논문이 아니고 문화작품이라고 하면서 배격하지 말자. 문화작품이라도 좋다. 사상의 혁신과 표현의 혁신이 함께 이루어지면, 논문이 작품이고 작품이 논문이다.²⁰⁾

나의 문장론은 어떠한 철학적 근거 위에서 구성된 것인가? …소위 논

19) ‘논문중심주의’, ‘원전중심주의’ 이 두 표현은 부산의 학인 김영민에게서 나왔다. 앞의 주 1) 과 2)를 참조하라.

20) 조동일, 우리학문의 길, 서울, 지식산업사, 1993, p.45.

문이라는 형식 자체가 근대서구 대학교육에서 성립한 모종의 특수형식을 지칭하는 것이지 철학논문 일반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가 없음은 명백하다. 좀더 자세히 그 일치된 관념을 분석해 보면 그것이 너무도 막연하고 근거 없는 허구임이 드러난다. 그들의 관념은 이런 것이다. 일인칭을 쓰지 않는 서술문으로 감정의 표현이 없이 메마르게 쓸 것, 엄숙하고 고상한 말들만 골라 나열할 것, 철학사의 기존개념의 조합 속에서만 맴돌 것, 그리고 설명 없는(저자, 책명 등만 나열하는) 주석을 붙일 것 등등이다. 논문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논문이란 자기의 주장을 펴서是非適否를 가리는 글”이며 여기에 어떠한 일정한 양식이 주문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자기의 주장을 펴기 위해서, 또 자기 나름대로의 체계를 의식하면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양식이 자유롭게 동원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지 못한 양식의 고정성은 그 文의 죽음을 의미할 뿐이다. …나는 나의 논문을 세인들이 시라 불러도 좋고 소설이라 불러도 좋고 수필이라 불러도 좋다. 그러나 나의 논문은 명백히 나의 철학체계의 성실한 논술이라는 사실만은 양보할 수 없다.²¹⁾

이들은 이미 논문이라는 형식의 제약으로부터 어느정도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와함께 보다 본격적인 글쓰기에 대한 논의가 사회과학자인 조혜정을 중심으로 한 「또 하나의 문화」그룹에서 진행되고 있음도 발견했다.

나는 이 책을 쓰면서도 무엇을 쓸 것인지에 관한 생각 못지않게 어떻게 쓸 것인지의 문제를 놓고 많은 시간을 보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결도는 말’과 ‘헛도는 삶’으로 매우 지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힘겹게 지탱하고 있는 상태에서 더 기운을 빼는 일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더욱 서술하는 방식과 ‘말투’를 놓고 씨름을 해야 했다. 형식이 내용을 한계짓는다는 말은 옳은 말이다.²²⁾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여전히 논문이라는 형식을 고집하고 있다. 김영민의

21) 김용욱, “哲學의 社會性.” 도둑논문집, 서울, 홍나우, 1991, pp. 92-94.

22) 조혜정,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쓰기와 삶읽기 : 제2권 각자 선 자리에서, 서울, 또하나의 문화, 1994, p. 8.

말대로 논문을 쓰고 있는 자신이 누구이며 동시에 왜 논문이라는 형식성에 맞추고 있는지, 또는 그런 형식의 글쓰기가 우리 땅에 맞는지에 대한 아무런 반성도 없이 말이다. 우리가 늘 전범처럼 바라보고 있었던 서양에서조차 이미 반성의 대상이 되는 글쓰기를 계속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과 같이 객관성과 명료성과 형식성이 강조되는 이런 논문식의 글쓰기가 지배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을 때 논문중심주의와 원전중심주의, 그리고 일리의 철학을 들고 김영민이 다가왔다. 그는 우리가 하고 있는 주제의 혁신, 방법의 혁신에 놀라움과 지지를 보내면서 글쓰기의 문제에 대한 필자들의 고민에 철학적 깊이를 더해 주었다. 필자들은 그가 쓴 글들을 찾아 읽고 그를 만나 밥을 먹고 문정포럼에 초청하며 토론도 하면서, 우리가 진행해 오고 있는 일련의 혁신과정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이끌어 내려고 노력해 왔다.

김영민이 말하는 논문중심주의는 논문만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글쓰기이며, 오직 논문을 통해서만 학문성이 보장된다는 허위의식을 말한다. 우리학계의 관행은 여전히 수입형의 직절한 글쓰기에 고착되어 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한편 소위 몇몇의 원전들을 논의의 출발점이자 귀결점으로 삼는 논문류의 글쓰기와 그 심리를 그는 원전중심주의라고 이름붙였다. 결국 그에 따르면 논문이란 눈치보는 글쓰기의 전형이며, 또한 글쓰기에서 눈치보기의 전형이 바로 원전중심주의가 되는 셈이다. 그리고 원전중심주의라는 고착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원전 바깥도 믿을 만하고 살만하다는 사실을 체득하는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용기와 성숙, 자궁심과 죽대의 문제로 나타난다고 한다.²³⁾

서양의 대가를 원전으로 모시는 행위는 필자들 주변에서는 일찌감치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이미 학문의 적실성에 관한 논의를 통해

23) 앞의 주 1)과 2)를 참조하라, 아울러 김영민의 또 다른 논문 “글쓰기, 복잡성의 철학: — 理의 해석학을 위하여, ” *오늘의 문예비평*(부산), 통권12호(1994 봄), pp.77-104도 참조하라.

우리 나름대로 극복해 오고 있었던 문제이다. 소위 말하는 원전은 필자들에게는 하나의 안목으로서만 작용할 뿐, ‘모든 논의의 처음과 마지막을 교룡정리하는 경전’은 될 수 없는 것이다.

필자들은 논문중심주의 역시 어느정도 탈피해 가고 있음을 부분적으로 느낀다. 필자중의 한사람인 김정근이 쓴 책인 <한국의 대학도서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책에 대해 몇몇 독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평을 받은 적이 있다.

‘과제에 걸맞는 문장스타일의 갈등과 제시기술의 방법론적인 고심’을 훌쩍 넘어서서 입장에서 쓴 글의 맛을 실컷 보게 하는 글이다. …시원하게 논문이 가지는 상투적이고 형식적인 언어들에서 철저히 탈피해 있는 것 같다. 요원하게만 느껴지던 논문언어의 경직성 탈피라는 과제가 결코 멀게만 느껴지지 않는다. …이 글을 읽으면서 완전히 발을 빼지 못하고 있던 학술적 글쓰기의 편견에서 과감하게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가진다. …논문에서 어떤 언어로, 어떤 톤(tone)으로 생각을 진행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철저하게 그 문제의 성격이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글은 증명하고 있다.²⁴⁾

그동안 우리는 대학교수들의 책은 어딘가 학문적 냄새가 가득해야 하고 권위가 잔뜩 들어있어야 하는 것으로 암암리에 인정해 왔다. …그러나 그러한 ‘권위’가 오히려 지식과 정보의 대중화에는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가득이나 적은 수의 글들이 생산되는 학문적 성과조차 몇몇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나 흥미를 줄 뿐, 정작 학문의 대상인 도서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반 ‘행복’한 읽기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런 현실문위기 속에서 접한 이 책은 그동안 틈틈이 저자의 글을 읽어보았던,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익숙해 있다고 생각한 필자에게도 무척 새로운 울을 주었다. …저자의 의도된 쉬운 글쓰기가 이 책을 통해 성공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동안 얼마나 ‘어려운’ 글들에 의해 상상력과 실천적인 힘을 빼앗겨 왔는가를 생각한다면 무척 ‘쉽게’ 쓰여진 이

24) 김종성의 편지.

글들이 그러나 얼마나 매우 깊이가 있으면서도 실천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큰 위안을 받게 된다.²⁵⁾

이와 함께 필자들 주변에서 나온 글이 현장의 사서들에게 ‘재미’있고 ‘쉽게’ 널리 읽힌다는 사실도 ‘논문중심주의’와 ‘원전중심주의’가 공동작업실 주변에서는 일정정도 청산이 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 준다.

IX. 우리의 지식인 사회는 식민성에 쩌들어 있다

지금까지 많은 말들을 풀어 놓았다. 학문의 실천성과 적실성, 연구테마의 문제와 기본개념, 연구방법의 문제와 질적연구, 글쓰기철학과 우리식 글쓰기…. 지금은 이 말들을 주워담고 추스려야 할 시점이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던져왔던 물음들을 한국 사회과학이라는 큰 틀로 옮겨서 던져본다.

과연 뚜렷한 현장을 갖고 있는 학문이 현장과 철저히 유기된 채 스스로 주체가 되지 못하고 주변에만 머물고 있는 이 총체적인 모순의 근원은 무엇이며, 우리는 이러한 모순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갖고 있는가? 이러한 현상이 우리 문헌정보학계만의 특수한 현상인가, 아니면 우리나라 인문·사회과학계 전반이 안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인가? 만일에 이러한 현상이 후자에 속하는 것이라면, 우리나라 인문·사회과학계 전반에서 폭넓게 논의되고 있는 근대성의 문제 혹은 탈식민성에 관한 논의의 틀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시각을 확보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필자들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부분적으로 조혜정을 통해 발견한다.²⁶⁾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발견되는 총체적 문제는 ‘보편적 이론에 대한 집착’, ‘외

25) 이용훈의 하이델 통신.

26) 조혜정, 앞의 책, p.16.

부의 권위에 기댈', '일상성으로부터 유리된 지식 생산'으로 집약될 수 있다. 여기서 한국의 문헌정보학계 역시 '식민성에 찌들려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현재 우리가 사회과학을 하면서 쓰는 언어는 궁극적으로 서구인들이 자신들의 변화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만든 이론이나 개념들이 곧바로 우리사회를 설명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일 수 밖에 없다. 여기서 자신의 문제를 풀어나갈 언어를 갖지 못한 사회, 자신의 사회를 보는 이론을 자생적으로 만들어 가지 못하는 사회를 조혜정은 식민지적이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의 근대사는 식민지 경험, 해방의 타율성과 미군정의 경험, 분단, 서구중심의 근대화와 그 파행, 정치적 비민주 등으로 점철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탈봉건을 통한 근대성(Modernity)의 완성과 탈식민을 통한 주체성 회복이라는 이중의 과제가 맡겨져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모두가 '유일하고 보편적'인 인류발전의 틀이라고 믿어왔던 거대한 담론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며 어떤 방법을 통해 가능할까? ...나는 여기서 탈식민화의 방법론으로 지난 4-5세기동안 '보편성'의 자리에서 군림해 온 서구를 상대화시켜 볼 것을 제안한다. ...이때 우리는 아버지의 언어에서 벗어나 상대주의적 시각에서 '다름'을 포용해 가는 훈련을 해야하며, 자기가 선 '주변'의 자리에서 역사를 기억해 내고, 자신의 일상을 이론화해 낼 수 있어야 한다.²⁷⁾

서양의 이론이 표준이며 우리의 도서관 현실에도 여전히 보편인가? 통계적 검증으로 대표되는 양적연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연구방법인가? 연구자는 오직 논문이라는 형식을 빌어서만 말을 해야 하는가? 이제 우리는 서구가 중심이 아님을, 보편과 표준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유일한 보편자로 군림해 온 서양을 하나의 특수한 역사성을 가진 사회로 이해해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서구를 상대화시키고 문화적 자생력을 길러나가야 한다.

27) 조혜정, 위의 책, pp.7-8.

문헌정보학 연구에 있어서 글쓰기의 혁신은 가능한가? 필자들은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식민성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글쓰기부터 혁신해야 한다.”

이 글 역시 원전중심주의, 논문중심주의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다는 점을 시인한다. 이 글이 발표되기 직전까지도 필자들이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원전에 기대고 과학주의적 문제를 떠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것을 공동작업실의 구성원들로부터 요구받았다. 아직도 글쓰기에 대한 필자들의 논의가 실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장자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끝을 맺는다.

彈殘天下之聖法 而民始可興論議-하늘아래 모든 성스러운 법칙 즉 논술의 형식을 부수버려라. 그리하면 비로소 민중들이 더불어 서로 論議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참 고 자 료

- 김영기. “도서관현상을 통해 본 공공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인식의 문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1993.
- 김영민. “글쓰기, 복잡성의 철학: 一理의 해석학을 위하여.” *오늘의 문예비평* (부산). 통권12호(1994 봄). pp.77-104.
- 김영민. “논문중심주의와 우리 인문학의 글쓰기.” *문화와 사회* (문화과지성사). 제7권 4호(1994). pp.1261-1282.
- 김영민. “원전중심주의와 우리 인문학의 글쓰기.” *문정포럼*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제7회(1995. 5. 19) 발표주제.
- 김영민, 김승철 좌담(사회 남송우). “지금 글쓰기란 무엇인가?” *오늘의 문예비평*.

28) 김용옥, 앞의 글, p.94에서 재인용.

- 통권 16호(1995). pp.16-45.
- 김용옥. "哲學의 社會性." *도올논문집*. 서울: 통나무, 1991. pp.65-121.
- 김정근. "사서직과 언어." *도서관소식*(부산대학교 도서관). 제3호(1992. 8). pp.1-3.
- 김정근. "나는 어떻게 제3세계 도서관방법론을 말하게 되었는가." *도서관문화*. 제34권 4호(1993. 7-8). pp.2-4.
- 김정근. *한국의 대학도서관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한울, 1995.
- 김종성. "부산대학교도서관 교육학장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1994.
-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학기논고집*. 제1집(1991)-제5집(1995).
- 이수상. "한국문헌정보학에 있어서 토착화 논의." *도서관*. 제49권 3호(1994). pp.63-84.
- 이용재. "부산대학교도서관 정치학장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1994.
- 이용훈. "한국 대학도서관 문제에 대한 실사구시적 글쓰기." *참작과비평*. 제23권 3호(1995 가을) 서평원고.
- 장덕현. "사서의 일상적 의식세계를 통해본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현단계-부산·경남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1994.
- 조동일. *우리 학문의 길*. 서울: 지식산업사, 1993.
- 조혜정.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읽기와 씀읽기*. 서울: 또하나의 문화. 제1권. 바로 여기 교실에서(1992); 제2권. 각자 선 자리에서(1994); 제3권. 하노이에서 신촌까지(1994).
- 최성진. "한국문헌정보학에 대하여." *창사이춘희교수 정년기념논문집*(1993). pp.81-112.

Is the New Writing Style Possible in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Jung-gun Kim*, Young-ki Kim**

〈Abstract〉

The present writers have raised some basic questions related to writing. Do the theses produced in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field tell our story? Are they field-oriented? Are they easy to be read and to be applied by the librarians?

Problems in writing include research theme, research method and writing style. The present writers have applied phenomenological approach to these problems, using the observation of 'Co-workers Team' and interpretation of the 'Term Paper Collection' (vol.1-vol.5).

Co-workers Team members consist of professors and graduate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Library, Archives and Information Studies of the Pusan National University.

We have made some proposals in this paper :

First, we should not talk about American story. We should talk about our own story, and go back to basic themes. This proposal is related to the innovation of research theme.

* Professor, Department of Library, Archives and Information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 Doctoral Candidate, Department of Library, Archives and Information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Second, qualitative research method should be introduced extensively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rd, the strict 'thesis-oriented' and 'text-oriented' writing style should be overcome. The prevalent writing style in our field is so uniform that they are not capable of describing the intricate problems like 'our living library'.